불우노인 보살피며 '자식노릇'

신행현장

도봉경찰서 '좋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며 세상을 밝게 만들어 나가는 불자 경찰들이 있다. 도봉경찰서 법우회 소속 불자 경찰 12명의 봉사모임인 '좋은 사람들'(회장 고광선, 도봉서 법우회장)이 바로 주인공들.

"예전엔 순사만 봐도 공무니 빠지게 도망갔는데 이젠 순사를 아들로까지 삼았으니, 세상 참…"이라는 도봉구 한 독거노인의 말처럼, 홀로 사는 노인들과 외로운 청소년들에게 자식과 부모가 되어주는 그들은 더 이상 제복 속에 갇힌 무서운 '경찰'이 아니다.

"외로운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쌀과 고기며 김장 김치를 나누어 주는 일밖에 한 게 없다"는 '좋은 사람들' 회원들은 지난해 5월 고 회장의 자비행이 알려지면서 결성됐다. 고 회장은 98년부터 도봉산 자락의 영세가정을 돌면서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이웃과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에게 막걸리 몇 사발과 구충제 몇 알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이 일이 계기가 돼 명절이 되면 부모님 모시듯 느티나무집(도봉1동)과 안골식당(도봉1동) 등지에서 조촐한 노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지난해 초 법우회 도반들에게 알려져, "기왕 시작한 일이라면 우리가 함께 봉사하는 모임을 만들어 보자"는 뜻이 모여, 법우회 회원을 주축으로 '좋은 사람들'이 발족했다.

도봉경찰서 법우회의 경우, 경승인 원정(원통사 조실) 현공(천축사 주지) 스님에게 10년 남짓 경전을 공부하며, "이제는 배움을 회향할 수 있는 일을 찾자"는 분위기가 있었던 터라, 봉사 모임을 결성하자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여기에

불자 경찰들 봉사모임
소년가장 생필품 지원
박봉쪼개 이웃에 온정

봉사에 관심 있었던 일반 경찰 2명과 도봉구 관내 47개 사찰의 52명이 불자들이 후원자로 참여했다.

좋은 사람들은 현재 도봉구 소년소녀가장 3세대 6명에게는 매월 생활비와 생필품을 보내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양부모 역할을 한다. 65세 이상 장애노인 40여 명에게는 가정 도우미로서 일상을 돕고 외출할 때 112순찰 차량을 동원해 이송한다.



◇도봉경찰서 법우회 회원들이 구내 독거노인들을 초청하여 노인잔치를 열고 있다.

또한 좋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시간, 물건, 돈 등의 5%를 소외받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자는 'GIVE 5%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도봉구 안골마을 독거노인들과 결연을 맺고 수시로 이들을 찾아가 자식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도봉구 관내 경찰서 및 파출소에서 헌 옷을 모아 복지시설에 기증하고, 경승실의 공양미와 과일 등을 모아 무의탁노인들에게 베푸는 일도 하고 있다.

고 회장은 "경찰이라는 격무에 남을 도와주는 일이 버거울 만도 하지만, 치안활동 만이 경찰 임무가 아니다"며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 해주는 일도 당연히 경찰 불자의 몫"이라고 말한다. 정현자 경장 역시 "남을 도와주면서 내가 얻는 것이 더 많다"며 "봉사활동을 통해 오히려 인생에 대해 배우는 것이 많다"고 말한다.

'좋은 사람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해주는 '나눔의 보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도봉경찰서 뿐만 아니라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월 5~10만원 월세의 단칸방에서 살며 자투리 밭을 일궈 먹고 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향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다.

바쁜 일상과 빠듯한 박봉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온정이 아닌 '나눔의 보시행'이기에 메말라 가는 세태 속에서 더욱 빛나고 있었다. 말없이 어두운 그늘을 밝혀주는 그들은 '불자 경찰'이라는 이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참 '좋은 사람들'이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믿음의 탑 세우기

나무를 비벼서 불을 얻고자 할 때, 제대로 열이 나기도 전에 문지르기를 그만 둔다면 결코 불을 얻을 수 없다.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노리듯,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해야 한다.

말에 걸리고 상에 걸리고,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면, 공부는 영원히 남의 일이다. 지옥에 떨어질까 겁나고 꽁지벌레 될까 겁나면 공부하지 못한다. 경계에 아랑곳 없이, 천방지축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밀고 나가라.

모든 것을 다 걸고 해보는 배짱과 당당한 포부가 있어야 한다. 좀 안다는 사람은 알아서 더는 못 나가고, 모르는 사람은 알려고 하지 않아 못 나가니 모든 걸 다 내던지고 나갈 줄 알아야 한다.

'이만하면 그냥저냥 공부하는 것이지' 하는 사람들이 많다. 진정 '마음공부' 할 수 있는 조건이 스스로 갖춰져 있다는 것을 절실히 생각지 않는 경우이다. 일체를 하나로 묶어 주인공에 열심히 믿고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인과를 녹이고 습을 떼고 참나를 발견하는 법이다.

모르니까 공부해야 하고 알면 아니까 또 공부해야 한다. 항상 붙들 것 없는 것을 붙들고, 앉으나 서나 일을 하면서도 늘 주인공을 염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생각이라도 허투루 하고 한데로 떨어뜨리면 안된다. 한 번에 몰아서 하거나 크게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한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 아무것도 바라는 바 없이 그렇게 해 나가노라면 어느 사이엔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세상이 밝고 아름답게 보이게 될 것이다.

탑이 올라가는 것을 보라. 돌을 하나씩 쪼아 올릴 때 던져 주춧돌을 놓듯이, 주인공에 일체 경계를 놓고 믿음의 탑을 세워야 한다.

살다 보면 앞뒤가 꽉 막혀 어떻게 해 볼 수조차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지는 때가 있다. 이러할 때 믿음이 흔들리고 공부가 뒷걸음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더욱 정진하는 사람도 있다.

근본 자리에는 시공이 없는 것이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간의 많고 적음이 마음 공부에는 해당될 일이 아니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미국과 아프간의 전쟁 타협과 양보의 길 찾아야"



해월스님
공주 원효사 주지

최근에 일어난 9·11 미국테러사건은 미국과 전세계인의 경악과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프카니스탄의 초토화 작전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 아래 감행되고 있습니다.

겉에 드러난 현실만 보자면 폭력에 대한 응징처럼 '지은대로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지만 대테러전쟁은 그 이면에 민족간 종교간 이념간 그리고 강대국과 약소국, 인종차별 등 수없이 많은 문제점들을 안은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마치 불꽃놀이처럼 펼쳐지는 폭탄의 세례 속에 아프칸 민간인들의 생명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민간인들이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마치 사냥꾼

모든 생명있는 존재
내 몸 같이 사랑할것

이 사냥감을 찾듯 일방적인 양상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응하는 상대도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생화학무기 테러를 서슴치 않고 있어 전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불교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양자간의 대결이 평화와 협력, 타협과 양보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마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아타〉에서 "인도의 제사장들이 욕망의 눈에 어두워 제물로 소를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의 평화가 깨어졌다"고 설하시며, 생명있는 존재를 내 몸같이 사랑할 것과 모든 생명의 평등과 존엄을 강조하셨습니다.

초목과 미물에 이르기까지 그 분의 큰 사랑과 지혜, 자비는 오늘날 우리가 봉착한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열쇠가 됨을 알아야겠습니다.

"불보살이 중생을 위해 몸을 버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시방세계는 곧 불보살의 몸이요, 피요, 골수 입니다"

미국의 공격을 지켜봐야 하는 우리나, 공격하고 보복하는 미국과 아프카니스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양측을 지원하는 서방과 이슬람 모두가 불보살의 피와 목숨을 흠집내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행동이 어떤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든, 곧 자신들도 모른 사이 자기를 죽이는 무고한 전쟁에 참여했음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가 평화와 자유라는 이름 이래 이 아름다운 지구를 무참히 폭격하고 있습니다. 종점 없이 마주 달려오는 기차와 같은 인류의 폭력성을 되돌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행복을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인간의 미망과 무지의 구름에 가려졌던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가에서 "한 생각 돌이키면 번뇌가 보리요, 중생이 부처이다"라는 말처럼 크게 깨달아야 합니다.

언젠가 값진 차완을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 다니러온 어린아이의 손에 닿으면서 차완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깨진 차완을 보면서 '아하 성형된 것은 언젠가는 흩어진다더니 저 차완이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구나' 하고 생각하며 조각을 치운 적이 있습니다.

생사의 성패가 한순간이요, 행복과 고통이 한바탕 꿈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항상 미망에서 벗어나도록 기도와 정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편이 저절로 생기고, 세계평화를 지켜나가는 데 앞장서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행 캘린더

11월 15일 (목)

■관음사 10년 기도정진 4차 입재식=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오전 9시 50분 대법당 3, 4, 5층에서 10년 기도정진 결사 4년차 입재식을 갖는다. 10년 기도정진은 2008년까지 계속된다. (053)472-6268

■밀운스님 조실 취임법회=서울 성북구 보덕선원은 10시 '밀운스님 보덕선원 조실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동안거 결제 준비에 들어간다. (02)914-4235

■조계사 교양강좌=서울 조계사는 오후 7시 교육문화회관에서 '생명 사찰 조계사 가꾸기'를 주제로 교양강좌를 연다. (02)720-1390

11월 16일 (금)

■뇌허 김동화전집 출판기념회=뇌허불교학술원은 오후 4시 40분 동국대학교 상록원에서 〈뇌허 김동화 전집〉 출판 기념회 및 봉정식을 갖는다. (054)770-2506

■천태국제학술대회=천태종은 오전 10시 서울 관문사에서 대각국사 의천 열반 900주년 기념 제4회 천태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02)3460-5212

11월 17일 (토)

■쇄설 한국불교사화 출판법회=경남 밀양 자비정사는 오후 2시 법당에서 〈쇄설 한국불교사화〉 출판법회를 개최한다. 〈쇄설 한국불교사화〉는 자비정사 회주 만송스님이 80평생 수도생활중 틈틈히 정리한 것이다. (055)356-1394

■현각스님 초청강연회=광주·전남 신도회는 오후 2시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스님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갖는다. (062)226-5161

■자원봉사 및 후원인의 밤=대구 불교사회복지회는 창립 11주년을 기념해 오후 5시 30분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및 후원인의 밤' 행사를 갖는다. (053)446-2074

11월 19일 (월)

■장애아동 부모아카데미=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12월 10일까지 복지관 1층 집단 상담실에서 매주 월요일 2시 장애아동부모아카데미를 개최한다. (02)989-4215

11월 20일 (화)

■자선바자회=부천 덕유사회복지관은 22일까지 오전 10부터 오후 5시까지 복지관에서 '겨울맞이 자선 바자회'를 실시한다. (032)325-2161

선무도 겨울 수련회

禪武道 大金剛門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겨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 간 : 2001년 12월 1일부터 3개월간(1주, 2주, 1개월단위)
▶대 상 : 초등학생 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각종 사회 단체 위탁 연수)
▶수련내용 : 참선, 선요가, 선무술, 전통문화(무용, 다도) 불교 교리 강의
▶동 참 금 : 학생(1일 - 2만 5천원, 1개월 - 60만원) 일반(1일 - 3만원, 1개월 - 65만원)
▶접수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단체 연수가 많으므로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예약없이 입산 불가)
▶수 련 비 입금 계좌 : 농 협 721107-52-037300 예금주) 설기준
▶수 련 비 : 개인 세면도구, 운동복, 운동화, 필기도구

1천 5백년전 신라시대에 창건된 골굴사의 부설 선무도 대학에서 주관하는 본 수련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대 자연 속에서 불교와 선무도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화랑정신을 배운다. 선기공 수련으로 정서불안과 각종 성인병 만성병을 치료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소홀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는다. 특히 피로에 지친 입시생들의 심신회복에 도움이 크다.

일 과 표

4시	기상, 예불	13시	독서와 사색
	(불참시에는 3천배 참회 및 전 대중이 1일 불식)	14시	오후 수련 및 전통문화 강습(학생)
		16시	운력(도량 청소 및 정비작업)
5시	좌 선	18시	저녁공양
6시	조깅, 등산	19시	예불후 학생은 자율학습 및 참회록쓰기
7시	아침공양(발우공양)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9시	오전수련	21시	점호 및 취침
11시	108배 참회기도(자이를 앙한 서원)		
12시	점심공양		

※ 입산 후 개인 외출, 이성교제, 술, 담배, 간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어길 경우, 3천배 참회 및 죽비나 회초리로 체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golgulsa.com 또는 sunmudo.com
※ 수련회 참가자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지난 10月28日 선무도 대학 생활관을 착공 하였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경북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산 304번지
세계 선무도 협회 대금강문 선무도 대학

봉인사 위빠사나 집중 수련

"그대는 이 순간에도 깨어 있는가"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위빠사나 수행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고요히 관찰 할 수 있는 시간에 동참하시어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6박 7일 수련 안내 ◈
• 일시 : 11月 26日 ~ 12月 2日
• 입실 : 11月 26日 오후 4시 부터 • 퇴실 : 12月 2日 오후 2시
• 지도 : 김열권님
• 참가비용 : 20만원
• 준비물 : 따뜻한 옷, 세면도구, 필기도구 담마를 체득하겠다는 서원
• 수행내용 : 마아시 사야도 방식 위빠사나(16단계)
• 좌선 : Rising.falling. Sitting. touching
• 경행 : 6단계

◈ 주말 수련 안내 ◈
• 매주 토 일요일 주말수련
• 입실 : 토요일 오후 4시 • 퇴실 : 일요일 오후 4시
• 동참금 : 이만원 • 지도 : 지산스님

▷ 연 락 처 : 031) 574-5585
▷ 참가신청 : 전화로 신청 후 계좌로 입금
(국민은행 277-25-0000-906 · 예금주 : 봉인사)
※ 미리 신청해 주세요.

봉 인 사 한 길 정 진 원

태아낙태원혼영가천도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지장기도 복지도량 지장선원에서는 파계사 주지 성우 큰스님을 모시고 낙태유산된 태아원혼영가 천도법회를 봉행합니다.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는 태아의 생명들 이 생명의 목소리에 마음의 문을 열어 현재 우리 자식처럼 사랑하시어 지장보살님의 원력, 위신력, 공덕력으로 부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줍시다.
이번 좋은 인연으로 악연은 풀고 나쁜업은 소멸하여 두루 소원성취 하시길 지장보살님께 기도발원 올립니다.
나무지장보살마하살

◆ 입 재 : 불기 2545년 11월 25일(음 10월 11일) 일요일 오전 10시
◆ 회 향 : 불기 2545년 12월 1일(음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 동 참 금 : 7일기도 동참금 3만원
◆ 태아위패비 : 태아영가 1위당 1만원
◆ 준 비 물 : 우유, 분유, 사탕(과자류)
◆ 입 금 계 좌 : 대구은행, 055-05-422870-001 지장선우

불기2545년 11월 좋은날 범어사 대구포교당
지장선원장 지공 손모음

☎ 053)744-0150, 0151